

“우리 마을의 축제 함께 기획·준비하며...”

진안군 찾아가는 축제기획학교 열어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신애숙)에서 올해 마을축제를 처음 개최하는 신규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축제기획학교를 열었다.

축제기획학교는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축제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마을축제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통해 각 마을마다 특색있는 마을축제를 열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번 축제기획학교는 22일 동향면 능갈마을과 상노, 하노마을을 시작으로 1월말까지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된다.

한 마을 이장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얘기를 해보니 뭘 해야 할지 풀렸다”면서 “마을에서 한동안 하지 못했던 마을행사를 주민들이 마을축제에서 한번 해보자 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신애숙 마을축제조직위원장은 “진안군마을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여느 지역축제와 달리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의 고유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의 축제를 함께 기획·준비하고 고민하면서 그 마을만의 색깔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진안군 마을 축제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부터 시작된 진안군마을축제는 농촌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신애숙)에서 올해 마을축제를 처음 개최하는 신규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축제기획학교를 열었다.

의 공동체 활성화와 도농교류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다년간 추진되어 왔던 마을만들기의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로부터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스스로 학습하고 즐기는

대안적 축제다. 올해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게 된 제11회 진안군마을축제는 50여개 마을에서 연중 마을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진구 인후3동, 저소득 아동에 도서구입카드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해를 맞이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 청소년에게 도서구입카드를 최근 전달했다.

지역 내 15명의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에게 한 학생당 20만원 금액의 이용카드를 지원하여 학과 문제집 등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서점 등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직접 연결해 줬다.

서성진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도서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며 희망을 찾아주는 동기가 돼 긍정적이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송문석 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 협의체 활동이 싹트는 인후3동으로 활기찬 협의체, 주민 모두에게 안정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협의체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덕진구청, 무술년 첫 과·동장 회의 열

전주시 덕진구는 22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2018년 첫 과·동장 회의를 했다.

구 주요 현안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지원, 강설 시 재설작업 신속대응 등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 강조하고 청소행진과 불법광고물 상시점검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주에 내린 폭설로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재설작업에 참여한 노고를 격려하고 22일 밤부터 또다시 한파와 폭설이 예고된 가운데 재설작업 준비, 모래주머니 비치 등 재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1월 정기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예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센터에 신규로 배치된 직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한편 김기병 덕진구청장은 “모든 행정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해외의료봉사활동 발대식

전북대학교병원은 의료환경이 낙후된 필리핀 지역에서 국경을 넘는 사랑의 인술을 펼친다.

전북대병원 해외의료봉사단은 22일 병원 본관 한벽루홀에서 오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필리핀 바콜로드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해외의료봉사활동 발대식을 했다. 의료진과 학생들로 구성된 필리핀 해외의료봉사단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필리핀의 의료소의 지역에서 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에는 단장인 소아청소년과 김선준 교수를 중심으로 부단장 소아외과 정연준 교수, 소아치과 양연미 교수, 이미진 전공의, 전북대학교 의전원생 14명, 치전원생 4명 등 총 22명이 참여한다.

봉사단은 현지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지역민과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문화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독거노인 점심식사 대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22일 전주시 덕진구 독거노인 100여명과 독거노인돌봄미 30여명을 대상으로 효자등의 한 음식점에서 사랑의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행사는 지부여성위원회가 주관해 매년 연말이나 연초를 선정해 전주시와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 성금을 전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성금 전달과 더불어 덕진구와 완산구에서 각각 독거노인 100여명을 초청해 식사대접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심민 기자



/이심민 기자

팔복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환경정비 활동 나서

팔복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이날 환경정비는 회원 28명이 2개조로 나눠 주민 통행이 많은 대로변, 청소취약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새마을부녀회 김경애 회장은 “쾌적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내 집 앞 내가 치우기,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사소한 것부터 함께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희숙 팔복동장은 “주민의 의식 변화에 따른 자율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깨끗한 팔복동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임실지사 433-3084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순창지사 256-2404	소성지사 253-684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911	010-6789-0388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3886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88	010-2333-4911	정읍지사 538-3087
호주지사 010-6645-9335	익산지사 659-9323	010-2333-4911	장수지사 010-3882-9157
	부안지사 010-2425-4182	010-2333-4911	무주지사 010-2301-423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